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김은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사회학 전공

esew@hanmail.net

- I. 머리말
 - II. 197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
 - III. 프로야구의 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야구복을 입고 배트를 휘두르며 사진을 찍는 것이 어느새 선거철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공중파 채널이 순번을 정해 최고 시청률이 보장되는 일일연속극과 프라임타임뉴스의 시간대를 비워가며 경기 실황을 중계 방송하는 것도 낯설지 않다. 오늘날 프로스포츠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장면들이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는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여가생활과 오락문화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구를 즐기지 않는 이들조차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든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같은 야구 격언들을 인생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명언으로 널리 인용할 만큼 야구가 현대인들의 감성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변동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 역시 사회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프로스포츠가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 현대인의 일상은 뚜렷하게 다를 것이며, 프로스포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상을 통해 당대인들의 문화와 감성의 단면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프로스포츠의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영국에서 프로축구의 시작은 노동자계급문화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스페인에서 프로축구의 성장은 프랑코정권 이후 지역을 경계로 첨예화된 정치적 저항

과 억압을 상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프로야구는 이민자국가 미국의 다인종·다민족사회를 통합해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이루는 도구로서 기능하며 성장했고, 인종간 차별과 통합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무대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런 사회들에서 프로스포츠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문제는 정치사와 문화사 혹은 경제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못지않게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었고 그 못지않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프로스포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그 기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탐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사회학을 비롯한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전반적으로 정치와 경제 중심의 거시적인 주제들에 경도되어온 탓도 있고, ‘공부와 운동이 분리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온 연구자들이 스포츠의 영역을 막연히 ‘비이론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정략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설명은 옳으며 더 이상 검증하고 논박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호출을 받은 야구인들에 의해 단 3개월 만에 ‘프로야구 창설계획’이 수립됐고, 그 뒤 다시 4개월 만에 리그의 창설과 6개 프로야구단의 창설이 모두 완료된 사실은 다양한 사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급작스럽고 급속한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군사정변과 시민적 저항에 대한 유혈진압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정치적인 것 밖으로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었음 역시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용되어왔던 그런 설명은 여전히 절반의 것에 불과한 것이며, 나머지 절반의 중요한 진실에서 오히려 관심을 떼어놓는 기능을 해왔다. 하나의 사건은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의 맥락에서도 규명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고 현실화될 수 있었던 배경의 구조적 맥락에 의해서도 설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두환 정권의 기획에 의해 급조된 프로야구가 곧장 기대 이상의 흥행실적을 쌓으며 꾸준히 성장했을 뿐 아니라, 불과 5년 뒤인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변함없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더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3S(우민화) 정책’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한 과도한 함몰은 다른 한 편 프로야구 종사자와 관련자들의 자학적인 사고를 유발하며,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프로스포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정서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어쨌거나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은 다양한 프로야구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들게 된다. 심지어는 광주 출신으로 호남 지역 연고 팀의 간판급 선수로 활약했던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광주 사람이고, 내 주변에도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운동선수로서는 나는 전두환 대통령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존경한다.(A씨, 해태 타이거즈 출신)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발전이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제시한 시간표와 방향에 따라 시작되고 전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의 욕망과 비전과 행동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무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전개과정 역시 '전두환의 기획과 추진'만으로는 모두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논문은 그 나머지의 영역으로 학문적 관심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그리고 스포츠계의 내적 동인 안에서 프로야구 탄생의 조건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에서 프로야구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1970년대 사회발전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가고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유신체제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금(解禁)된' 측면이 있음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

해외에서는 프로스포츠의 출범과 발전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월터 캠프(Walter Camp, 1921)와 폴 징(Paul J. Zingg, 1986) 등은 미국 프로야구의 출범과 발전 과정에서 야구가 미국의 '국민스포츠'(national game)가 됨으로써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음에 주목했으며, 빌 머레이(Bill Murray, 1996)와 거손 샤피르(Gershon Shafir, 1995) 등은 유럽 프로축구의 역사가 지역과 민족과 계급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갈등이 처리되는 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했다.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한 해외 프로스포츠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은데, 조정민(2014)은 일본에서 패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려는 욕망이 프로야구와 프로레슬링을 출범시켰고, 특히 두 종목에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연출하며 미국에 대한 패배의식을 내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재구 외(2014)의

연구는 프로스포츠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창설되어 산업구조 고도화(3차 산업으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에서 프로야구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극히 미진한 편이며, 특히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연구들 역시 '전두환 정권의 정략'과 그에 부응한 '몇몇 체육인들의 실행'에 관한 에피소드 중심의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¹

그래서 이 논문은 '1970년대의 사회구조 안에서 프로스포츠 출범의 조건들'을 찾는 탐색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연구들을 참조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고교야구와 실업야구, 프로야구에 관한 문헌자료와 당시 야구계 중심에서 활동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한 구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사회경제통계자료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의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고, 야구협회와 야구위원회가 작성한 각종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 야구계의 동향을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 실업야구 시대의 지도자와 행정가와 선수로서 프로야구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용일, 박영길, 김응용, 김성근, 어우홍, 김영덕, 이광환, 박용진, 임호균 등과 직접 수행했던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 기록의 빈틈을 보충해보려고 한다.

1 안민석(2001), 김명권(2012), 이해지(2013), 송학동(2016), 김지영(2018) 등.

II. 197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

1. 위기와 위기담론

오늘날 1970년대는 흔히 '암흑기'로 인식된다. 정치적으로는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폭력적 억압과 봉쇄에 기초한 유신체제(1973-1979)가 이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1973-1974, 1978-1980)이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강타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1960년대부터 내내 이어져 온 고속성장의 동력이 한계에 도달하며 성장의 속도가 완만해졌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강행했던 중복투자의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서 각종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던 시기이기도 했다.²

'유신체제'란 유신헌법이 선포된 1972년 10월부터 박정희가 심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암살당한 1979년 10월까지의 7년을 가리킨다. 그 시기에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명시된 대로 두 차례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토론 없는 무기명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두 번 모두) 단 2표씩의 무효표를 제외한 99.9%를 득표해 대통령직을 연장했다. 그리고 역시 유신헌법이 쥐어준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 그리고 사법부 전체와 입법부의 1/3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완벽한 독재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는 그 '헌법적' 권한을 십분 활용해 2번의 계엄령과 9번의 긴급조치를 발령했고 1972년부터 1979년까지 모두 4,361명³의 정치범을 구속시키며 대학생과

2 1960년대 내내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경제성장률은 1970년에 7.6%로 급락했고 1972년에는 5.8%까지 떨어졌지만 1973년 14.9%로 회복됐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하는 불균일한 패턴을 이어갔다(한국은행 경제통계 <https://ecos.bok.or.kr>).

3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긴급조치 1,4,9호가 적용된 연도별 구속자의 수를 합산함. 법령별 연도별 구속자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으로부터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의 일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정치적 반대나 비판 혹은 비협조세력의 활동을 통제하고 분쇄했다.

이미 10년 이상 권력을 장악해온 박정희가 새삼 그런 폭압적인 정치질서를 만들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1963년 선거에서 신승(辛勝)하면서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비교적 튼튼하게 쌓아올렸던 지지율이 얼마 버티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1967년에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부정선거항의시위에 굴복해 결국 10명의 공화당 소속 당선자들을 제명해야 했던 사건이나 엄청난 관권과 금권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추격을 허용해야 했던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였다.

그리고 유신헌법 선포 직후부터 더욱 심화된 경제적 위기는 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예컨대 유신시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던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맞물리면서 큰 타격을 몰고 왔다. 제4차 중동전쟁 직후인 1973년 10월 17일 OPEC의 석유무기화선언으로 촉발된 1차 석유파동은 국제 원유 가격을 1년 만에 400% 가까이 폭등시켰고, 1978년 12월 26일 이슬람혁명이 진행 중이던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시작된 2차 석유파동은 이미 절상되어 있던 원유가격을 다시 165%나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 경제적 충격을 안겼지만, 대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던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은 특히 심한 편이었다. 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25.5%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1975년에는 68.5%에 달할 만큼 높아져 있었고, 그만큼 원자재가격 동향과 같은 해외여건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72년과 1973년에

수(통계 출처: 이목훈, 『한국의 노동통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제 3, 4, 5 공화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105쪽).

2억 달러 선을 유지했던 경상수지 적자폭은 1974년과 1975년에는 20억 달러 선까지 늘어나기도 했다.⁴

따라서 그 시기에 정부가 생산한 담론은 일관되게 ‘비상상황’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절약과 근검’ 의식을 고취하고 ‘사치와 나태’의 경향에 철퇴를 내리는 각종 조치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1월 14일 박정희는 ‘저소득층 조세감면, 생필품 가격과 대중가격 요금 안정, 고소득층 사치행위 및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를 선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6월 6일에는 문화공보부가 ‘공연물 및 가요정화 대책’을 발표해 ‘공공질서 확립에 반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그리고 사회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공연물’ 등을 ‘정화(淨化)’하기 위해 당시까지 발표된 모든 대중가요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선언했다. 그 이후 1970년대 중후반 내내 언론지면은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퇴폐풍조를 척결하기 위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방침 선포와 조치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된다. 예컨대 양주와 귀금속, 경마장과 터키탕 등의 ‘사치성 소비품목’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발표되었고, 1975년 7월에는 175곡, 12월에는 223곡의 대중가요에 대한 공연금지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유신 체제 하에서 상류층의 비생산적인 사치풍조를 질타하고 생산에 매진하는 노동자들을 찬양하는 언설들이 강조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1973년 9월 박정희는 ‘공장 근로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몇 만 원을 하룻밤 고급 요정 식대로 소비하는 몰지각한 일은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대표적인

4 최용호,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백산서당, 1999), 109쪽.

사례였다.⁵

물론 노동자와 기층 민중의 저항에 대한 강경한 억압은 박정희 정권이 견지해온 일관된 흐름이었다. 1970년 11월 13일에 발생한 전태일의 분신과 1971년 7월에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1979년 8월 YH무역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살인 진압에 이르기까지 그 기조가 흐트러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도래한 엄청난 위기 앞에서 급속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선언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인 동시에 그런 비상대응의 급박한 필요 때문에 비정상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선전의 전제였고, 그러기 위해 ‘상류층을 질타하고 노동자를 추켜세우며’ 언설과 이미지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2. 소비증가와 대중문화의 성장

하지만 유신체제의 위기담론이 순전히 국제정세로부터 주어진 불가피한 대응일 뿐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1974년 기준 석유류의 물가가중치는 4.92였고 석유화학제품을 합하더라도 5.6일 뿐이었다. 이는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10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물가가 받는 상승압력은 5.6%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점이었던 400%의 실제 유가상승률을 대입하더라도 22.4% 이상의 물가상승과는 연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⁶

5 《동아일보》, 1973년 9월 27일자.

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정은,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대응」, 『한국사학보』 38호(2010), 275쪽에서 재인용).

표1-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상승률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소비자물가 총지수 (2015년=100)	4.9	5.6	6.2	6.4	8.0	10.0	11.5	12.7	14.5	17.2	22.1
소비자물가 상승률(%)	16.0	13.5	11.7	3.2	24.3	25.2	15.3	10.1	14.5	18.3	28.7

* 자료: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 소비자물가상승률 = ((금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하지만 표1에 나타나듯 197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3%였으며 이듬해인 1975년에는 원유가격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양상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비슷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과 대만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15%와 1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높은 편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 김정주(2007), 이정은(2008), 김미경(2016) 등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위기를 사회로 분산시킴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대자본에 집중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사채를 동결함으로써 기업의 손실을 비금융권 화폐보유자들에게 떠넘겼던 1972년의 8.3조치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방조를 통해 기업이 감당해야 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노동자의 실질임금상승 부담을 그대로 흡수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긴급조치 3호'로 선포했던 '생필품 가격 억제' 조치는 불과 3-4개월 만에 흐지부지 사라져버렸고,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 인상분과 임금인상분을 그대로 상품 가격에 반영했고, 정부는 1979년 4월 17일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해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전까지 별다른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1970년대 내내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과 동조하는 패턴을 그려왔으며,

실질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을 앞지르지 못했다.

끊임없이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절제를 요구하면서도 당시의 정부는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었다. 10여 년 이상 지속해온 경제성장과 그 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그 성장의 성과를 누리고 싶은 욕망 역시 키워왔고,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가뜰이나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거대한 도전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상승의 와중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진 명목임금의 상승은 ‘돈의 환상’⁷을 만들어냄으로써 불만을 완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표2-1인당 명목 및 실질 민간소비지출액과 증가율(단위: 만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인당 명목 민간소비지출액 (만원)	6	8	9	11	16	21	26	31	40	51	64
전년 대비 증가율(%)	26.3	23.1	17.4	20.0	40.7	31.4	25.7	19.9	29.9	27.3	26.1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액 (만원)	130	142	149	173	196	205	224	244	277	298	292
전년 대비 증가율(%)	8.9	8.4	5.1	16.3	13.2	4.9	9.0	8.9	13.5	7.6	-2.1

* 자료: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1) 1인당 민간소비지출 = 민간소비지출 ÷ 총인구

2) 실질 민간소비지출은 연평균 물가지수(2015년 = 100)를 이용하여 산출

물론 ‘돈의 환상’은 관념 안에만 머물 수는 없었고, 실제 소비행위로 이어짐으로써 확인되어야 했다. 민간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의 증가폭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7 김미경,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인플레이션 정치」, 『아세아연구』 59호(2016), 95쪽.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출항목 내에서 의식주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대목이다. 표3에 의하면, 1978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서 지출항목 중 '잡비(식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를 제외한 부문)의 비중은 1973년을 기점으로 27%대로 올라서게 되는데, 그런 상승폭은 대부분 음식물비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즉, 앵겔계수가 낮아지고, 문화적인 소비가 늘어났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표3-민간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연도	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1970	52.32	7.64	4.42	10.33	25.49
1971	52.46	7.91	4.15	10.12	25.65
1972	52.24	7.85	3.82	10.24	26.69
1973	51.27	8.00	3.81	11.69	27.92
1974	51.79	7.99	3.73	10.30	27.26
1975	50.65	7.87	3.96	10.76	27.65
1976	51.06	8.56	3.67	10.42	27.72
1977	49.51	8.88	3.78	10.78	28.59

* 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1978), 244쪽.

이 시기 민간소비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이 가전제품의 보급률이었다. 1970년에 38만 대에 미치지 못했던 TV 보급대수는 1974년에 100만 대를 넘어섰고, 1980년대 초에는 500만 대까지 늘어나게 됐다. TV보다 한 발 앞서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 역시 197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1970년대 말에는 500만 대 선을 넘어서게 됐는데, 보통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던 당시의 정보매체들로서 500만 대란 실질적으로 '가구당 1대'에 가까운 보급이 이루어졌고⁸,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매체를 통한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8 1980년 한국의 총가구수는 797만 가구였다.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4-가전제품 보급 추이

	1967	1970	1973	1975	1978	1980
라디오	966,596	1,896,952	2,824,622	3,467,661	4,644,995	-
TV	66,062	378,331	962,119	1,613,276	3,729,229	4,921,595

* 1963. 1. 1. TV 유료방송 개시. / 1980. 12. 1. 컬러방송 실시.

*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한국의 TV에서 야의 스포츠경기를 처음 중계방송한 것은 1962년 6월 12일이었다. 그 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야구장에서 열린 한일친선야구 대회 중소기업은행과 메이지대학의 경기가 KBS의 황우겸 아나운서에 의해 중계된 것이 그 첫 번째 사례였다. 그 뒤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고교야구대회 등으로 확장되어간 TV 스포츠 중계방송은 1972년을 기점으로 라디오 중계방송의 빈도수를 넘어섰는데⁹⁾, 그것은 1970년대 중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확대가 스포츠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III. 프로야구의 태동

1. 스포츠의 상업화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미래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기업(대개는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들의 수입은 같은 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기

9) 이강우, 「한국사회의 스포츠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II)」, 『한국체육학회지』 36권 2호(1997), 48쪽.

때문이다. 다만 특별히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고, 그 선수를 두고 영입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스카우트비’라고 불리는 계약금 혹은 보너스가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큰 편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비자금 전달’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¹⁰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스포츠의 상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포츠 팀들이 늘어났고, 우수한 선수들을 놓고 벌이는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1977년 7월 21일자 경향신문에는 ‘대졸 야구선수 100% 취직’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전까지 정부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역시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은행들만 참여하던 실업야구 무대에 민간기업과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였다.

1976년에는 롯데가 새로이 팀을 창단해 리그에 참여했고, 1977년에는 한국화장품이 역시 새로 팀을 창단해 가세했다. 그리고 역시 같은 1977년에는, 국영기업이긴 했지만 자금력 면에서 기존의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었던 포항제철이 기업은행을 인수해 대신 리그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해에는 현대가 역시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을 인수해 리그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두 팀의 선수들 중 우수한 선수들만 선별적으로 입단시키려는 계획이 알려지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어쨌든 순수하게 두 팀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필요했고,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팀들도 더 많은 선수들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에 100% 취업이 달성됐

10 대부분 기업 간부와 선수 부모간의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고, 계약서를 비롯한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약속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양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갈등과 상호 비난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야구나 축구보다는 농구와 배구,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 선수들의 대우가 더 좋았다. 그런 사정을 반영하듯 1977년 들어 '역대 스포츠사상 최고 몸값'을 갱신하는 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농구, 배구와 여자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1977년 5월, 국가대표 배구 주공격수로서 이미 '한국배구 역대 최고의 선수'라 불리며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던 강만수를 영입한 금성 실업배구팀이 3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해 화제가 됐지만, 그 해 연말 숙명여고 졸업을 앞둔 유망주일 뿐이던 전미애에게 한국화장품 실업배구팀이 똑같은 300만 원의 '장학금'을 약속해 나란히 최고 몸값 선수로 대우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천재타자의 출현'이라며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양대의 장효조가 1200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듬해인 1979년부터 포항제철 실업야구팀에서 뛰기로 해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섰지만, 얼마 뒤인 1979년 2월에는 '그나마 그 해 졸업생 중에는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고려대 농구부의 단신 가드 이동균이 그 4배가 넘는 5천만 원을 받고 현대에 입단하면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그 해에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플레이어인 차범근이 공군 전역을 앞두고 되자 현대가 1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하는 사건도 벌어졌지만, 차범근이 독일 프로팀으로 진출하면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1980년에는 연세대를 졸업한 야구선수 최동원에게 실업팀 롯데가 5천만 원(대외적으로는 3천만 원으로 발표)의 계약금을 약속했지만, 한 해 뒤인 1981년에는 송원여고를 졸업하던 배구 유망주 제속자가 '최동원 만큼(3천만 원) 주겠다'는 현대의 제안을 물리치고 5천만 원을 제시한 호남정유에 입단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은 '입단'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일시금의 성격이었고, 일단 입단한 뒤에는 그런 특급 선수들 역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월급을 받아야 했다. 1980년 당시 7급 공무원의 초임(본봉. 1호봉)이 9만 원이었고, 1978년 대기업 중 대졸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았던 금성사가 19만 3천 원이었던 점(과장 초임 최고액은 37만 7천 1백 원을 주던 대림산업¹¹)에 비추어본다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일에 가린 채 '1년 치 월급' 안팎에서 합의되던 스포츠스타들의 몸값은 불과 몇 년 만에 수직상승해 '대기업 직원의 20여년 치 월급'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셈이다.

한 명의 선수를 입사시키기 위해 한 명의 일반 직원을 20년간 고용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그 선수가 소속되어 활약해주어야 할 운동부가 이전까지처럼 단순히 직장의 명예를 빛내고, 영업에 다소의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업종에 준하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스포츠 전반의 성장 속에서도 1970년대 내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종목이 바로 야구였다.

2. 야구의 전국화와 산업화

1972년 황금사자기 쟁탈 고교야구대회의 결승전은 한국야구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 날 창단 5년째를 맞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결승전까지 진출한 신에 군산상고는 전통의 강호 부산고에게 9회 말까지 4대 1로 밀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공격에서 4점을 만들어내며 기적적인

11 《경향신문》, 1978년 7월 4일자.

역전 끝내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극적인 승부였다는 경기내적인 의미보다도, 군산상고에 '역전의 명수'라는 멋진 별명을 붙인 그 우승이 그 이전까지 야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호남 지역의 야구 열기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야구는 서울, 인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스포츠였다. 해방 직후 부산의 경남고가 독식했던 고교야구의 패권은 전쟁 직후 인천의 인천고와 동산고로 넘어갔고, 1960년대 들어선 뒤로는 서울과 대구 지역의 학교들이 가세해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구 지역의 경북고가 최강의 팀으로 군림했으며 선린상고, 경남고, 대구상고 등이 도전하며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축하는 구도를 이어갔다.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광주일고의 전신인 광주서중이 초창기였던 1949년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전쟁 중 야구팀을 해체한 뒤로는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1968년에 군산상고에 야구부가 창단되자 1970년에 광주일고와 광주상고가 역시 야구팀을 만들긴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받는 형편은 못 됐다. 하지만 군산상고가 부산과 영남권을 대표하는 부산고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당시 군산상고 야구부 선수들은 군부대에서 제공한 무개차를 타고 전북지역의 주요 대도시였던 전주, 익산, 군산을 돌며 카퍼레이드를 벌였고, 야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호남의 전국제패'를 자축했다.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의 야구지망생들까지 군산상고로 전학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전남의 광주일고와 광주상고도 적극적인 야구부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1975년에 광주일고가 1977년에는 광주상고가 각각 대통령배와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하며 '호남세'라는 표현을

언론지면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970년대에 시작된 호남의 야구열풍은 곧 인접 지역인 충청권을 자극해 고교야구부 창단 붐을 불러일으켰고, 1977년에는 공주고가 역시 충청권 최초로 전국대회인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게 1970년대는 이전까지 '경부선 라인'에 국한되어왔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야구의 전국화는 동시에 야구의 지역 간 대결구도 확립을 의미했다. 특히 1971년부터 한국일보가 개최하기 시작된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는 예선 없이 전국의 모든 고교야구팀이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회였는데, 그 대회가 시작되면 대회장인 동대문야구장은 출전학교의 동문회뿐만 아니라 고향 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각 지역 향우회가 집결해서 대리전을 벌이는 공간으로 변모하곤 했다.

야구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군산상고 야구부의 설립자이자 후원자이며, 훗날 프로야구의 산파이기도 했던 이용일(전 야구협회 전무, 전 KBO 사무총장, 총재 권한대행)은 이렇게 회상한 바 있다.

군산상고가 처음으로 우승한 다음 호남 지역에 야구의 인기가 일어났고, 곧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 그 뒤로는 동대문야구장이 그냥 야구를 응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대결의 장으로 변했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프로야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지. 나중에 프로야구 창설계획을 만들 때 지역연고제를 뼈대로 삼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이용일 인터뷰: 2010년 1월)

최동원이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고 공개했을 때(실제로는 5천만 원) 한 신문에서는 그 의미를 '야구선수가 가장 값싸게 팔리던 전례를 봤다고 평가했다.¹² 그 이전까지 농구와 배구, 축구 등에 비해 높은 계약금을

받을 기회가 없던 야구에서 최고 액수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가 나왔다는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2년 뒤 실제로 프로야구리그가 창설되었을 때 가장 많은 몸값을 받은 미국 프로야구 출신 박철순이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것(계약금 2천만 원, 연봉 2400만 원)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최동원이라는 독보적인 선수가 가진 특별한 상품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반적인 한국 스포츠의 성장세와 그 안에서도 특별히 빨랐던 야구의 급등세를 반영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3. 프로야구 창설 시도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프로야구의 운영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인식은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5년 10월에 최초의 민간 실업야구팀을 창단한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당시부터 이미 프로야구팀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사실은 1979년 신격호 회장이 직접 ‘프로야구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개되기도 했다.¹² 하지만 롯데 실업야구팀 구단주 신준호(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의 경남고 동기생이라는 인연으로 야구팀 창단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장본인이기도 했으며, 1977년부터 그 팀의 감독을 맡기도 했던 국가대표 출신 박영길의 증언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서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었잖아. 내가 권유를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에서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

12 《동아일보》, 1980년 12월 1일자.

13 《동아일보》, 1979년 12월 22일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 실업팀만 하려고 했으면 굳이 그렇게 엄청난 거금을 쥐가면서 최동원을 영입할 필요도 없었지. 내가 롯데(실업팀) 감독이 됐을 때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구단주이자 일본 프로야구의 최고 실력자였던 쇼리키가 와서 나하고 신준호 구단주를 만난 적이 있어. 그 때 쇼리키가 그러더라고. 한국에서는 당장 프로야구를 시작해도 된다.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왜냐면 일본은 동경에서 야구를 시작해서 팀을 만들고, 그게 조금씩 지방으로 퍼져나갔지만 한국은 전국적으로 야구가 보급돼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경쟁구도가 될 거라고 말이야.(박영길 인터뷰: 2011년 5월)

물론 1979년 이전까지 프로야구 추진이라는 아이디어는 롯데의 수뇌부 몇몇의 머리 속에만 머물던 것이었다. 하지만 1975년 말에는 보다 구체적인 조직적인 프로야구 창설의 시도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1975년 1월 1일 '한국직업야구 추진위원회'가 창설됐던 것이다.

미국에서 배관사업을 하던 홍윤희라는 사업가가 귀국해 야구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일일이 설득해간 끝에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야구인들이 하나 둘 협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끝에, 1974년 말에는 실업야구를 운영하던 실업야구연맹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홍윤희가 미국에서 가져와서 공탁한 사재 20만 달러는 자신을 향하던 막연한 불신을 불식하는 동시에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입증하는 매개물이 됐다.¹⁴

홍윤희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실업야구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이호현, 그리고 실업야구 각 팀의 단장과 감독을 맡고 있던 장태영, 허종만, 김계현, 허정규, 정두영, 김응용, 김성근, 유백만, 남승진, 김양중,

14 홍순일(당시 서울신문 주간스포츠 기자) 인터뷰.

김재송 등이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¹⁵

이들의 구상은 '실업야구팀들을 단계적으로 프로야구팀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추진 첫 해에는 10개의 실업팀에 각 지역 연고권을 부여해 '동해리그'와 '서해리그'로 나누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편성한 뒤, 1977년부터는 10개 팀을 6개 팀으로 재구성하면서 모든 선수들도 각 출신지역별로 재편성해 완전한 지역대결구도를 갖춘다는 것이었다.¹⁶ 그리고 1978년부터는 일본 프로야구와 함께 '동북아리그'를 구성해 각 리그 우승팀 간에 '아시안 시리즈' 대결을 벌여 아시아 야구의 최강팀을 가린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10개 구단의 해체 후 6개 구단으로의 재편성'이라는 과격한 구상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야구단 운영에 별 의지가 없었던 공기업 팀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프로팀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강했던 민간기업 팀들의 구상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같은 팀들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업의 특성상 경영자 나름의 판단으로 금융 외적인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저 창구영업에 다소의 도움이 되는 '직장 야구부' 수준을 넘어서는 야구의 발전과 경쟁 심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순조로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팀을 해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반면 롯데와 한국화장품, 포철 같은 기업들은 야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 실업팀 선수들을 해체모여 식으로 재편성한다면 더 많은 선수들을 보유해 더 강력해진 전력을 갖추 수 있다는 점에

15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사』(1999), 788-789쪽.

16 《경향신문》, 1976년 2월.

17 1976년 현대의 한일은행-제일은행 야구팀 인수 시도가 그런 사정을 보여준다. 당시 한일은행은 야구부를 실제로 해체하기까지 했다가 인수가 무산되면서 재창단 했다.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10개 구단을 6개로 재편성한다는 구상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싶은 쪽과 데려오고 싶은 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이런 구상과 노력은 야구협회, 그리고 문교부의 반대에 부딪치며 무산되고 말았다. 야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산하단체인 실업야구연맹과 대립하는 양상이 전개되자 1976년 3월 6일 문교부가 내무부, 상공부, 재무부, 대한체육회와 더불어 '관계기관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정부와 야구 관련 단체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야구협회는 대한체육회와 더불어 '실업팀들이 프로팀으로 전환되면 9월로 다가온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추락을 피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다.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하던 당시 대부분의 국제대회는 직업 선수들의 출전을 불허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실업야구 선수들이 프로선수로 전환될 경우 야구대표팀은 고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선수들로만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문교부 당국자 역시 야구협회 등에 동조하며 반대의 뜻을 표했는데, 그러자 기존에 찬성 입장에 서있던 실업야구연맹 인사들도 순순히 뜻을 접으면서 곧바로 결론이 지어지고 말았다.

당시 문교부 당국자가 정확히 어떤 논리로 반대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야구협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문교부가 그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양자간에 물밑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야구협회는 '국제대회 준비의 어려움' 외에도 '야구팀 수를 줄인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프로야구 단체가 야구협회보다 우위에 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었다.¹⁸

하지만 논의 이면에 숨어있던 또 다른 쟁점 중의 하나는 '야간경기'에

관한 것이었다. 프로야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야구팬들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에도 경기를 편성해야만 했고, 그러자면 야간경기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홍윤희가 예치한 20만 달러도 대부분 지방 야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교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 바로 그 ‘야간경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내의 야외 경기장에 야간조명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서울운동장 야구장(동대문야구장) 뿐이었다. 1963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자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위원장의 ‘선물’로 건설된 것인데, 몇 차례의 시범경기를 치른 뒤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을 겪은 뒤로는 조명시설을 점등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었는데, 비싸진 전기요금 부담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던 국가시책과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다.¹⁹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매일 전국 세 곳의 야구장을 낮처럼 환하게 밝혀놓은 채 야구경기를 치르겠다는 구상을 당시의 문교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쨌든 4개 정부부처와 3개의 체육단체가 모두 나서서 의견을 조율한 끝에 결론을 내려야 했을 만큼 그 사건은 간단치 않았다. 그 정도의 전정부적인 움직임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공식적인 결정과정 이전에 미리 검토와 분석과 판단의 과정이 완료되지

18 《경향신문》, 1978년 4월 20일자.

19 에너지 절약에 관한 부담은 매우 큰 것이었다. 심지어 토요일이었던 1982년 3월 27일에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가 9회 말까지 7대 7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 마침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조명을 켜고 연장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요일인 다음 날 다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해 10여 분간 갈팡질팡 했을 정도였다. 당시에도 야구위원회 인사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정부 기관의 요인’에게 문의하고 답을 들은 뒤에야 조명탑 점등 스위치를 올릴 수 있었다.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1976년 야구계를 뒤흔들었던 ‘직업야구연맹’ 논의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해프닝’이 아니라 진지하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으며, 치열한 논쟁과 계산과 힘겨루기의 과정을 통해 기각된 사안이었다. 특히 반대의 논리 가운데 실제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문제제기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 역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시의 추진계획이 무산된 이유가 흔히 언급되었던 ‘시기상조’의 것이어서 라거나 ‘선부른 것’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산’의 이유로 문교부가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네 글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IV. 맺음말

1981년 5월, 실업팀 롯데의 감독 박영길은 청와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입구에서 그곳을 빠져나오던 축구협회장 최순영과 마주쳤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상주가 박영길에게 물은 것은 ‘야구의 프로화’에 관한 의견이었고, 박영길은 같은 질문이 축구협회장에게도 던져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청와대를 빠져나온 박영길은 ‘축구보다 야구가 한 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몇 년 전 홍윤희 대표의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야구협회 내의 ‘프로추진파’였던 이호현과 이용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호현과 이용일(군산상고 야구부 창설을 후원했던 이)은 곧 18쪽짜리 ‘프로야구 창설계획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 계획서는 3개월만인 8월에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어 11월에 대통령의 재가

를 받았고, 그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은 이용일과 이호현은 곧장 재벌기업 총수들을 접촉해 6개 팀의 창단을 확정지었다. 그래서 12월 11일에는 '한국 야구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고, 이듬해 봄인 1982년 3월 27일에는 프로야구 개막식과 개막전이 치러졌다. 훗날 밝혀진 바로는, 축구협회가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과 달리 야구는 '약간의 세계 혜택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한 덕분에 '최초 프로화'의 대상으로 낙점 받은 것이었다.

불과 반 년 만에 '단순 아이디어'가 '개막전'으로 이어진 무시무시한 속도와 과정을 '전두환 정권의 의지와 추진력' 외의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과 야구팬들이 '프로야구는 전두환의 작품'이라고 결론지어 버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급조된 현상은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소멸해야 상식에 부합한다. 프로야구가 오직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면 민주화를 거치며 허물어져 내렸어야 옳았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야구의 인기와 산업적 비중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야구 개막 후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신생팀 창단의 자격(리그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선수들을 모으고 훈련장을 건설하는 등에 소요되는 창단 자금을 제외하고도 야구위원회와 야구계를 위한 수백억 원의 기부를 마다하지 않는 기업들이 줄을 서는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²⁰

예컨대 1988년, 전두환 정권이 퇴진함과 동시에 프로야구 1군 리그에 참가한 '제7구단' 빙그레 이글스의 모기업 한화그룹은 기존 6개 구단의

20 2015년에 제10구단 창단 경쟁에 나선 KT는 창단에 필요한 자금 외에 야구발전 기금 200억 원을 약속한 끝에 부영그룹을 누르고 선정될 수 있었다(그 외에도 경기도 독립리그 창설, 아마야구 지원 등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지출을 약속했다).

뎡세 때문에 서울 도곡동에 7층 건물을 지어 야구위원회에 기부한 다음에야 팀을 창단할 수 있었는데, 그 건물은 지금 야구위원회와 야구협회가 입주해 '야구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6년 사이에 프로야구가 이미 수십억 원대의 진입장벽을 세워 후발 사업자들을 견제해야 할 만큼 유망한 사업영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창단 초기에는 없었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프로야구가 가능한 배경 위에 전두환 정권의 행동이 결합되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의 시대였고, 위기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소비능력과 소비의 지는 꾸준히 성장해왔음이 여러 경제지표들을 통해 확인되며, 여러 종목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이 급상승한 사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 와중에 특히 야구는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군산상고가 종전 후 호남권 학교 최초로 우승을 하며 전국화 되었고, 실업야구에 스타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계기들을 통해 급성장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대결구도에 안착하며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사정이 꾸준한 프로화의 움직임을 낳았고, 결국 정치적 필요와 맞물린 전두환 정권의 과감한 추진력에 힘입어 국내 최초의 구기 종목 프로스포츠로 시작될 수 있었다.

끊임없는 위기를 오히려 정권 유지의 기회로 삼아 '이런 위기상황 때문에 장기집권과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박정희 정권은 '긴축과 절제'를 기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틈을 비집고 또 한 번의 군사정변과 시민저항에 대한 유혈진압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 박정희 정권 시기에 한껏 억눌려왔던 소비와

문화에 대한 욕망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유용했다. 프로야구에 대해 ‘시기상조’의 판정과 ‘급속추진’의 결단으로 엇갈린 두 정권의 행동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프로야구의 역사를 ‘전두환 정권의 의지’에만 묶어두는 것은 단견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국은행 경제통계(<https://ecos.bok.or.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사』. 1999.

구술 자료: 이용일, 박영길, 김응용, 김성근, 김영덕, 이광환, 박용진, 임호균, 홍순일.

2. 단행본

김은식, 『삶의 여백 혹은 심장, 야구』. 한겨레출판, 2013.

_____, 『서울의 야구』. 서울역사편찬원, 20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Crolley, Liz and David Hand, *Football and European Identity: Historical Narratives through the press*. New York: Routledge, 2006.

Murray, Bill, *The World's Game: A History of Socc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6.

Shafir, Gershon, *Immigrants and Nationalists: Ethnic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Catalonia, the Basque Country, Latvia and Estoni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3. 논문

김명권, 「한국프로야구의 창립배경과 성립과정」. 『스포츠인류학연구』 7권 2호, 2012, 163-183쪽.

김미경,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인플레이션 정치」. 『아세아연구』 59호, 2016, 80-114쪽.

김성환, 「1960-70년대 노동자 소비의 주체화 연구」. 『코기토』 81호, 2017, 544-585쪽.

김응식, 「한국 프로스포츠의 발전과정과 미래지향적 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호, 1997, 35-68쪽.

- 김정주, 「1970년대 경제적 동원기제의 형성과 기원」. 『역사와 비평』 81호, 2007, 285-309쪽.
- 김지영, 「MBC청룡 팀 선수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프로야구 출범의 사(史)적인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 23권 3호, 2018, 69-83쪽.
- 김태민, 「프로 스포츠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EPL, NFL, La Liga, KBO를 통한 사례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3, 62-67쪽.
- 남행웅·고영준, 「경제발전에 따른 프로스포츠의 실태와 전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호, 1995, 323-330쪽.
- 송학동, 「한국프로축구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심은정,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26호, 2014, 197-238쪽.
- 안민석,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사태와 한국 프로스포츠의 구조」. 『황해문화』 30호, 2001, 357-367쪽.
- 이강우, 「한국사회의 스포츠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II)」. 『한국체육학회지』 36권 2호, 1997, 43-58쪽.
- 이상록,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 『역사문제연구』 29호, 2013, 137-282쪽.
- 이정은,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정부의 대응」. 『한국사학보』 38호, 2010, 249-282쪽.
- 이종길, 「한국 프로야구의 지역연고제와 정치적 지역주의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7권 2호, 1998, 84-95쪽.
- 이종원, 『제5공화국의 스포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유재구·김민길·김석규, 「중국의 경제발전과 프로스포츠 상호 영향력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53권 2호, 2014, 281-292쪽.
- 이혜진, 「한국프로야구의 성립과정」.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진원, 「도시성장과 프로스포츠 활성화간의 상호작용 분석: 한국 4대 프로스포츠에 관한 경험적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권 3호, 2015, 139-165쪽.
- 조정민, 「전후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스포츠 문화: 제일조선인 프로레슬러 역도산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37호, 2014, 323-343쪽.

Giulianotti, Richard, "Supporters, Followers, Fans and Flaneurs: A Taxonomy of Spectator Identities in Football."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Vol. 26, 2002, pp. 25-46.

Walter Camp, "The Truth about Baseball."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213, 1921, pp. 483-488.

Paul J. Zingg, "Diamond in the Rough: Baseball and the Study of American Sports History." *The History Teacher*, Vol. 19, 1986, pp. 385-403.

국문초록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프로스포츠가 오직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소멸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프로스포츠의 인기와 산업적 비중은 오히려 커졌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프로스포츠가 이미 충분한 사회경제적인 배경 위에 전두환 정권의 행동이 결합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정치경제적 위기담론이 지배했지만 대중의 소비능력과 욕망은 꾸준히 성장했고,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도 급등했다. 특히 야구의 인기는 군산상고가 극적으로 우승한 1972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를 계기로 전국화 되었고, 지역대결구도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야구 창설 시도가 이어졌고 1982년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위기를 오히려 정권 유지의 기회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은 늘 긴축과 절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의 저항을 유혈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가장 절실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억눌려왔던 소비와 문화에 대한 욕망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프로야구에 대한 두 정권의 상반된 행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프로야구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급조된’ 것이었다기보다는 ‘해금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1. 16.

계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1970년대(1970's), 프로야구(Professional Baseball), 위기담론(Crisis discourse), 국민스포츠(national sport), 박정희 정권(Park regime), 전두환 정권(Chun regime)

Abstracts

Changes of Korea Society in 1970's and the Birth of Professional Baseball

Kim, Eun-sik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Korean professional sports have been promoted by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Chun regime regardles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f it were illusions made only by the Chun regime, they would have vanished after democratization. On the contrary, the popularity and economic importance of professional sports has grown, and continues to grow. This is because professional sports has already begun to combine the actions of the Chun regime on a sufficiently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1970's was dominated by the discourse of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However, the consumption power and desire of the public grew steadily, and the value of sports players also skyrocketed. Especially after the popularity of baseball became nationwide in 1972,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eventually it could be started in 1982.

Park regime, which used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maintain its regime, has always emphasized austerity and temperance. However, The Chun regime, which slaughtered the opposing citizens in the process of ruling, sought to turn political attention elsewhere. The opposing behavior of the two regimes against professional baseball can be understood in that context. In short,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was not 'improvised' by the Chun regime, but 'unblocked'.

